

France, plastic container market trends

# 프랑스, 플라스틱 용기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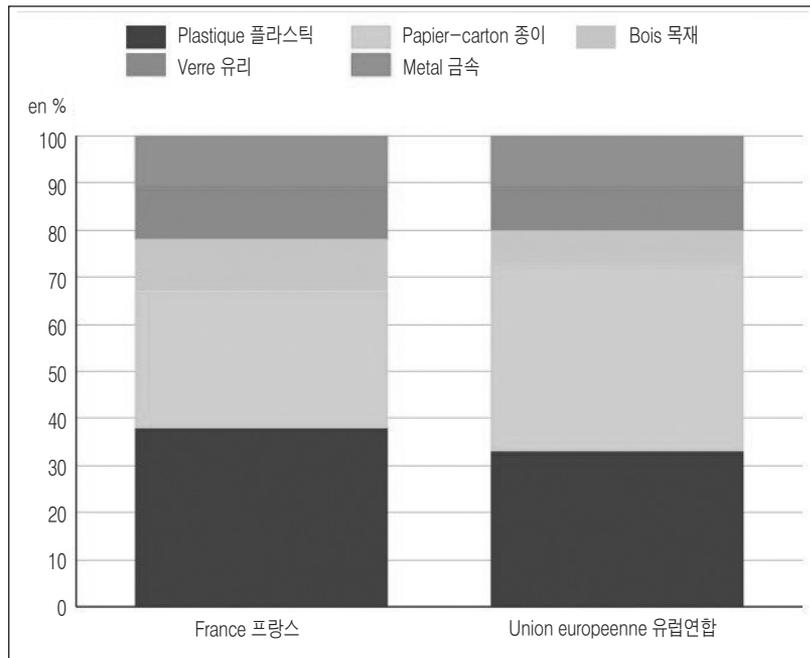
- KOTRA 해외시장뉴스(<https://dream.kotra.or.kr/kotranews/index.do>) 자료 제공 -

## 1. 포장용기 및 플라스틱 시장 규모 및 형태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유럽연합(EU)에서 생산되는 포장제품의 시장 규모는 1,381억 유로 규모이며,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포장제품의 시장 규모는 그중 13%인 183억 유로를 차지한다.

프랑스 내 매출은 주로 플라스틱 포장(38%, 약 69억 유로)과 종이 포장(29%, 약 53억 유로)에서 대부분 창출되며 그 뒤로 철강, 유리, 목재 포장제품 순의 매출 규모다.

[그림 1] 프랑스 포장 용기 자재별 시장 규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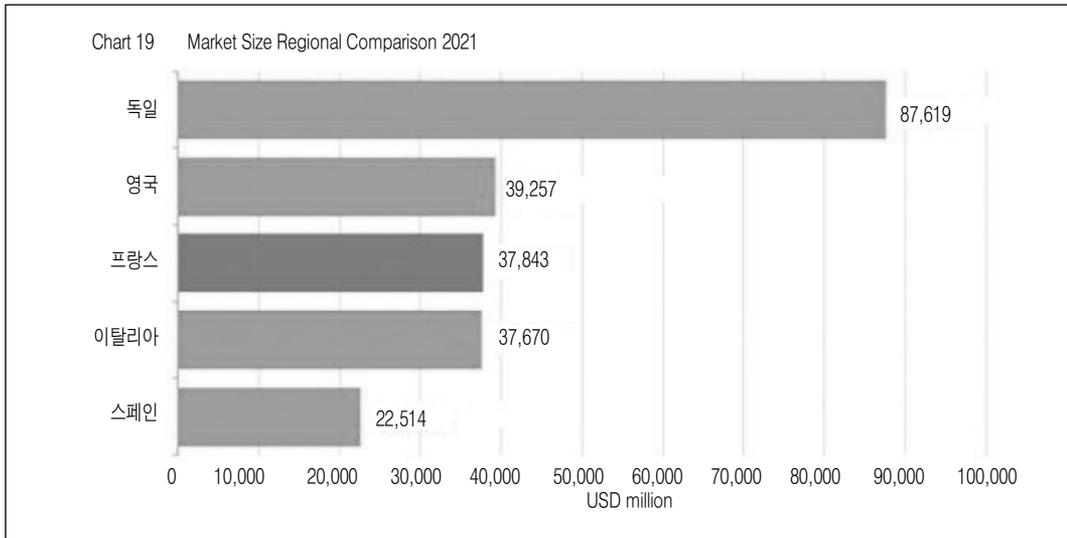


자료: 프랑스통계청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프랑스의 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약 378억 4,300만 달러로 독일, 영국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플라스틱 시장이다. 프랑스의 플라스틱 산업은 상위 대기업 5개가 전체 생산량의 16.0%만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세분돼있다. 2021년 기준 B2B 거래가 전체 수요의 81.3%를 차지

[그림 2] 유럽 주요국 플라스틱 시장 규모 비교

(단위: US\$ 백만)



자료: Euromonitor

하며 수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또한 수입이 전체 시장 규모의 52.9%를 차지할 정도로 외국 공급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표 2] 지원 사례2

종류	특징 및 용도	이미지	소재별 재활용 라벨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 가볍고 튼튼함 - 내열온도: 40°C/+60°C - 샐러드, 과일 등 차가운 음식 용기, 물병으로 사용		
폴리프로필렌 PP (Polypropylene)	- 충격 흡수, 단열성 높음 - 내열온도: -20°C/+120°C - 전자렌지 사용이 가능해 일반 요리 용기로 사용 - 냉동 가능, 밀봉 - 뜨거운 음식 용기 사용		
폴리스티렌 PS (Polystyrene)	- 단단하고 강도가 있음 - 내열온도: -5°C/+80°C - 전자렌지 사용 불가 *일부 발포폴리스티렌 용기(아래 케밥 용기)는 2021년부터 사용 금지됨.		

자료: Mon-emballage

### II. 플라스틱 원료 소재별 식품 용기 특징 및 재활용 라벨

음식용 플라스틱 용기는 그 소재에 따라 용도가 결정된다. 용기별로 내열성과 전자렌지 사용 가능성, 단열성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식품 용기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 소재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폴리스티렌 용기 중 케밥 등 따뜻한 샌드위치용으로 사용되던 발포 폴리스티렌 용기는 2021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 III. 플라스틱 규제 정책 동향

2020년 발효된 낭비방지순환경제법(Loi anti-gaspillage pour une economie circulaire)으로 프랑스 정부는 산업 분야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서도 환경오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크게 ①일회용 플라스틱 퇴출 ②소비자 교육 ③낭비 방지, 재사용 장려 ④일정 시간 후 새 제품을 구매하도록 만드는 계획적 구식화 방지 ⑤친환경적 생산체계 확대 등 다섯 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이 중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은 2040년까지의 4단계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단계 규제가 진행 중이다. 2025년까지 목표는 프랑스 정부가 강조해온 '3R(Reduce, Reuse, Recycle)'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다음과 같다.

-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사용량 20% 감축, 최소 절반 이상 재활용 통해 감축.
- 2025년까지 필수적이지 않은 1회용 플라스틱 포장 100% 없애기.
- 2025년 1월1일까지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100% 달성, 이를 위해 시장에 출시되는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활용할 수 있는 성분으로 의무적 사용.

이는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2021년부터 다음과 같은 규제를 적용 중이다.

- 2021년: 발포 폴리스티렌, 스티로폼 상자 사용금지, 공공시설의 플라스틱병 무료 제공 금지, 일회용 비닐 백 생산 및 수입 금지, 빨대 및 1회용 식기, 테이크아웃 용 컵 플라스틱 뚜껑, 음식용 꼬치, 풍선용 막대기, 플라스틱 컨페티 사용금지 등.
- 2022년: 1.5kg 이하 과일과 채소 판매 시 비닐봉투 금지, 생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티백을 비롯한 패스트푸드 체인의 플라스틱 완구 배포 금지 등.
- 2023년: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일회용 용기 사용금지, 4월부터 상점에서 거래 후 제공되던 종이 영수증도 소비자 요구가 없는 경우 제공 금지 예정.

- 2024년: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의료 장비 판매 금지 예정.

#### IV. 주재국 수입 동향 및 대한 수입 규모

HS Code 3923.30 기준 프랑스 플라스틱 용기 2021년 수입액은 6억7,510만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14.6%가 증가했고, 2022년 11월까지의 수치는 6억5,415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표 2] 프랑스 플라스틱 포장용 제품 수입 동향 (2019~2021년) (단위: US\$ 천, %)

순위 (2021)	국가명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21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전체	623,590	589,114	675,104	100.0	100.0	100.0	14.6
1	독일	112,953	102,021	113,205	18.1	17.3	16.7	10.9
2	벨기에	86,931	87,056	99,559	13.9	14.7	14.7	14.3
3	스페인	78,080	70,505	70,158	12.5	11.9	10.3	-0.4
4	중국	62,281	45,927	66,562	9.9	7.8	9.8	44.9
5	이탈리아	54,365	52,640	60,602	8.7	8.9	8.9	15.1
6	오스트리아	46,258	41,139	44,981	7.4	6.9	6.6	9.3
7	네덜란드	40,808	41,524	41,888	6.5	7.0	6.2	0.8
8	폴란드	18,598	28,175	36,920	2.9	4.7	5.4	31.0
9	룩셈부르크	21,548	23,358	26,133	3.4	3.9	3.8	11.8
10	영국	19,706	21,944	21,683	3.1	3.7	3.2	-1.1
16	한국	7,700	5,117	5,666	1.2	0.8	0.8	10.7

자료: ITC Trademap

[표 3] 프랑스 플라스틱 포장용 제품 수입동향 (2022년 1월~11월) (단위: US\$ 천, %)

순위 (2021)	국가명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1.1~11/22.1~11)
	전체	654,157	100.0	6.0
1	독일	105,108	16.1	2.3
2	벨기에	97,485	14.9	6.4
3	중국	80,226	12.3	36.4
4	스페인	71,933	11.0	10.2
5	이탈리아	56,763	8.7	6.2
6	오스트리아	37,504	5.7	-10.3
7	네덜란드	36,063	5.5	-6.3
8	룩셈부르크	32,386	5.0	38.8
9	폴란드	30,147	4.6	-11.7
10	영국	21,432	3.3	5.1
11	체코	9,085	1.4	-4.6
12	한국	8,923	1.4	66.0

자료: Global Trade Atlas

6.0%가 증가한 수치다. 주요 수입국을 보면 독일, 벨기에, 스페인 등 유럽 주변국이 대부분이고, 10위권 내 국가 중 유럽 외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021년 전년 대비 44.9%가 증가했고, 2022년 1월~11월까지 수입액은 36.4%가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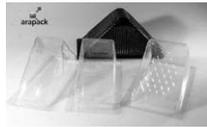
한편 프랑스의 對한국 수입액 또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511만7,000달러였던 수입액은 2022년 10.7%가 증가한 566만6,000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2022년 1월~11월까지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66.0%가 증가한 892만 3,000달러를 기록했다.

## V. 경쟁동향

프랑스 국내 대표적인 플라스틱 음식 용기 제조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 2] 지원 사례2

기업명	소개	대표상품	이미지
Plus P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14년 설립된 덴마크 기업으로 프랑스에 법인 및 제조공장이 있음</li> <li>- 음식 용기 전문 제조, 푸드 서비스, 테이크 어웨이 푸드 패키징 리테일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용된 PET 소재 런치박스, 투명한 음식 용기, 전자렌지 사용가능 용기, 보온용기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음식용기</li> </ul>	
Arap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7년 설립된 프랑스 기업</li> <li>- 플라스틱 음식용기 및 코스메틱 패키징 제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T, PVC, PP 소재 플라스틱 용기와 PS 소재를 이용한 다양한 모양과 두께의 용기 제조</li> <li>- 최소 주문량 10,000개</li> </ul>	
Guill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2년 설립된 프랑스 기업</li> <li>- 음식 포장용기 제조 기업으로, 21,500 제품 리퍼런스 제공</li> <li>- 전 세계 21개 생산 공장 보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T, CPET, PP, PS, 종이, 펄프, PLA 등 광범위한 소재를 사용해 거의 모든 종류의 음식용기를 제조</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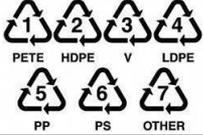
자료: Europages, 각 기업 홈페이지

## VI. 유통구조

플라스틱 용기 제조 기업이 자체적으로 원재료를 조달해 용기를 제조, 가공해 판매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제조사 측에서 리퍼런스로 제시하는 모델 중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하는 모델이 있을 경우 별도 제작을 주문할 수 있다.

[표 2] 지원 사례2

이름	로고	내용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 포장라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 사항 아님</li> <li>- EU 지침 따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 공식화됨</li> <li>- 해당 숫자에 따라 각각 다른 플라스틱 종류를 가리키며, 재활용 가능 의미</li> <li>- 1번: PETE, 2번: PEHD, 3번: PVC, 4번: PEbd, 5번: PP, 6번:PSE, 7번: 기타</li> </ul>
Triman 재활용 가능여부의 무표기 라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부터 의무적으로 표기</li> <li>- 제품 위에 직접 표기하거나 포장지, 설명서에 표기</li> <li>- 부분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표기하며 포장 원료 성격에 따라 분류되는 쓰레기통의 색깔도 함께 표기: 플라스틱은 노랑색(Bac de tri), 유리는 초록색 쓰레기통 등</li> </ul>

자료: Europages, 각 기업 홈페이지

## Ⅶ. 관세율 및 인증

한·EU FTA로 HS Code 3923.30에 속하는 상품의 관세율은 0%다. 프랑스 정부는 2025년 1월1일까지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비율 100%를 목표로 하고 있고, 시장에 출시되는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활용할 수 있는 성분으로 의무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프랑스 진출 시 제품의 생분해성 검증 혹은 재활용 플라스틱 인증이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재활용 플라스틱의 인증 및 라벨은 다음과 같다.

## Ⅷ.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의 플라스틱 산업에서 외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편이며, 음식 용기의 경우 수입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프랑스 정부는 ‘순환경제를 위한 낭비 금지법’ 등에 의거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산업계, 소비자, 환경단체 등 이해 당사자의 참여와 조정을 거쳐 현실적인 탈 플라스틱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과 관련 업계는 프랑스 정부의 플라스틱 규제에 따라 발생하는 대체 수요와 신규기술 및 혁신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소비재 포장재, 가전 소모품, 식음료 용기,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비즈니스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친환경/재활용 소재 제품이 빠르게 일반화되면서 바이오 플라스틱 등 신소재 관련 기업 간 기술적 협력 수요 및 장비 수요도 증가할 수 있어 다양한 방식의 진출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